



김승수 전주시장 29일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6·13 지방선거 전주시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 재선 도전 “문 대통령 약속 문화특별시 완성”

“시민들의 뜻 받들어 예비후보 등록 지선 합류
선거용 전략적 정책 선택 아닌 전주 위해 고민”

김승수 전주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로 나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급한 시정현안을 우선 챙기며 시장직을 유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 윤곽이 드러나고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예비후보로 등록, 지방선거 운동에 합류한다”고 후보등록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난 4년 동안 전주는 놀라운 성장을 했지만 꿈꾸었던 그림을 완성하기에 4년이라는 기간은 짧다”

며 “전주문화특별시를 반드시 완성해 전주를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올려놓겠다”고 재선의 이유를 언급했다. 이어 김 시장은 “지방선거용 전략적 정책 선택이 아닌 오로지 전주시를 위해 고민하고 시민들의 아픔과 눈물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치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시장 직무는 정지됐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이면도로·골목길에 보행자 도로명판 설치

전주시가 대로에 비해 길을 찾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충한다. 시는 차량 위주의 도로표지판으로 인해 위치를 찾는데 불편함을 겪어 온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골목길과 이면도로 등 992곳에 보행자용 도로명판(현수식 162곳, 벽면형 830곳)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도심 대로변 교차로를 중심으로 차량용 도로명판을 설치해 왔으나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골목길과 이면도로의 교차로를 집중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확정받아 도심지역에 이어 농촌마을의 골목길에도 도로명판을 설치할 계획이어서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길 찾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중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대부분의 시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주소의 원리를 이해하면 시설물만 보고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명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전북도 예산위원회... 사업 집행 등 주민참여 확대

상반기 중 주민제안사업 공모

전북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29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제1차 전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일반주민, 재정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 등 3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전라북도의 재정여건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설명에 이어 도민제안사업 공모 등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평가 등 예산과정 전반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예산 과정에 도민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주민참여범위 확대와 예산낭비 감시단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주민제안 사업을 공모하고 감시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정부에서도 예산 등 핵심정책과제에 주민참여 강화를 정부혁신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무럭 무럭 잘 자라렴”

도, 새만금 어린이랜드서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무궁화·곰솔나무 심어
시민들에 살구나무 등 나눔



전라도 정도 천년맞이 제73회 식목일 행사가 군산 새만금 어린이랜드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무궁화와 해송 등 나무를 심고 있다.

전북도는 ‘제73회 식목일’을 맞아 하여 29일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 어린이랜드에서 시민, 임업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해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문동신 군산시장, 새만금개발청·전북도·군산시 공무원, 임업관련단체, 군산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무궁화와 곰솔나무 2,000그루를 심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고, 미래의 먹거리인 새만금에서 천년을 도약하는 희망을 심자는 뜻에서 2000그루의 나무를 심게 되었다”면서 “특히 GM대우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에게는 내 나무가트 캠페인의 일환으로 살구나무와 앵두나무 600그루를 나누어

주었고, 행사 후 산업단지 인근 식당에서 참석자들의 증식으로 고통 분담 동참했다. 이송복 환경녹지국장은 “식목일 기념행사를 ‘새만금 어린이 랜드’에서 개최함은 ‘나라꽃 무궁화 등을 통해

여 이곳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과 미래 새천년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였다”면서 “오늘 심은 나무들은 앞으로 정성껏 잘 가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 내달 30일부터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펀딩대회’

전주시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같이 공익적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시민들과 함께 키우기로 했다. 시는 사회적경제·공유경제를 주제로 오는 4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시민들이 관심있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온두레공동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후원하는 크라우드펀딩대회를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의 합성어로 시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공감하는 프로젝트 또는 갖고 싶은 상품과 서비스를 가진 프로젝트의 투자와 모금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사회적기업 오마이컴퍼니(www.ohmycompany.com)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선한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나눔, 호혜, 신뢰, 연대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사회적경제조직과 공동체들에게는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을 학습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펀딩대회에 참가할 전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3일 사전설명회를 진행한 후 9일까지 프로젝트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후 4월 30일부터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가 개시되면 프로젝트에 참가한 팀들은 다수 시민들 누구에게나 온라인·모바일을 활용해 직접 자금을 모으고 기업 홍보를 할 수 있게 된다. /채규남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